

서평

우리 이웃의 신학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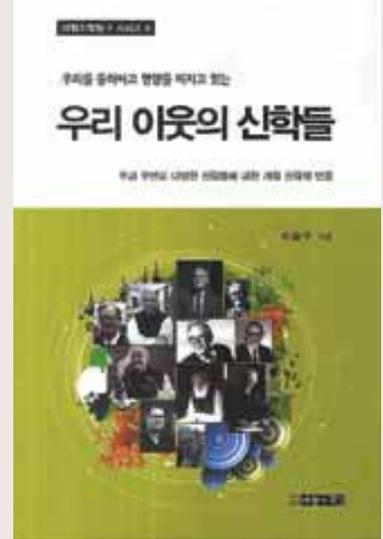
저자는 이 책의 출판 동기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이 책에서 다룬 신학자들과 운동들의 생각은 정통 기독교회의 가르침과 다르고, 특히 개혁파 정통주의와는 상당한 거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상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학을 하지 않는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간접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심각성을 느낀 저자는 성경적, 개혁신학적 관점에서 이 사상들을 평가하게 되었다. 이들 사상의 정체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하여 이들의 잘못된 영향에서 벗어나 참된 성경적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어려운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저자는 비교적 명료하고 쉽게 신학적 이슈들을 풀어내고 있다. 특별히 최근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 영향력 있는 신학자들의 배경과 특성, 문제점을 핵심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신학도와 목회자들의 필독서로 추천할만한 책이다.

저자는 현재 유행하고 있는 종교 다원적 현상이 새로운 것이 아니므로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 배우고 실천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종교 다원적 상황은 신약 교회가 시작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면 된다는 것이다.



안명준 중앙대학교졸업, 합동신학대학원(M.Div.),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Th.M.),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Th.M.), University of Pretoria(Ph.D.)을 거쳐 현재 평택대학교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피어선기념성경연구원 원장이다. 또한 한국개혁신학회 부회장, 한국장로교신학회 총무를 맡고 있으며, 한국기독교학술원회원,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 실행위원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저자가 우려하는 것들이 있는데,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영향들 곧 반 펠라기우스주의와 계시가 지금도 임한다는 신사도 운동이다. 또 혼동을 주면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나 성경과 정통 개혁신학과는 거리가 있는 바르트, 차일즈, 피터 엔스, 존 요더, 레슬리 뉴비긴, 톰 라이트 등의 학자들도 다룬다. 이들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침투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저자는 이들에게 매력적이고 유혹적인 것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검토하여 경계시키고 올바른 개혁파적 성경신학의 길을 찾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천주교 신학, 종교다원주의와 내포주의 신학, 바르트 신학, 매력을 주는 신학, WCC 신학을 다루고 있다.

천주교 신학에서는 헨리 나우윈, 관상기도, 로마가톨릭 교회의 '의화(義化)'를 다룬다.

저자는 헨리 나우윈이 누구이며 진정 복음주의적 신비가이며 영성가인지 개혁신학적으로 성찰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성경적 진리로 돌아가야 할 것을 강조한다. 천주교 사제인 나우윈의 신학은 한 마디로 준비주의를 강조하는 공로신학이며 반 펠라기우스주의로, 만인구원론적 경향을 띄고 있

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에 위배된다. 또한 그는 성경적 윤리관의 입장에서 동성애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하지도 못했다고 한다.

저자는 토마스 머튼과 토마스 키팅에 의해 주도되는 관상기도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그는 관상기도의 문제점과 약점을 잘 극복하면 성화의 도구가 된다는 소수의 주장까지도 비판한다. 관상기도는 신과의 합일을 위해 요가나 초월명상을 이용하여 꾸준한 기도 수련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노력은 반 펠라기우스적인 사상에 근거한 것이며 종교개혁의 정신에 위반된다. 성경의 경건을 떠난 관상기도는 보편 종교적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저자는 참된 기독교인들이 드릴 수 있는 참된 기도를 제시한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의존하여 성령님의 감화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또 성경의 선택 구절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상기도는 본문의 참된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말씀 사역자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주해하여 참된 의미를 밝혀주고 성도들은 성령님 앞에서 깨어 있는 자세로 설교와 강의를 들어 가장 성경적인 방식으로 나아가록 힘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유행을 따르지 말고 그 근원적 사상을 파악하는데 힘쓸 것을 당부한다.

로마카톨릭 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트렌트 공의회에서 왜곡된 교리를 작성하였다. 천주교의 의화 교리는 은혜의 주입이라는 반 펠라기우스적 신학으로 “오직 은혜만으로(sola gratia)” 구원받는다 진리에 인간의 공로를 더하여 성경적 가르침을 변경하였다.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이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천주교에 이질적인 세계관이 들어왔음을 반영한다.

저자는 종교 다원화 속에서 존 희을 평가한다. 희은 예수님을 참된 신인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이 참된 증보자가 아니며 증보자가 필요 없다고도 하였고, 신 개념도 참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였다. 심지어 구원 역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중심의 이기성에서 벗어나 이타적인 삶을 살며 그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저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신론을 양태론적으로 보아서 안 된다는 것과 구원에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 받는다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희의 구원론은 내포주의 신학자 클락 피녹과 유사하다. 클락 피녹은 구원의 개방성과 그리스도의 최종성을 주장하였다.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도 개방적이고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시며 그들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희망하신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녹의 내포주의는 복음화되지 못한 이들의 최종적 구원이 과연 성경적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는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을 넘어선 것이다. 피녹은 하나님의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는 오류를 범했고, 결국 일반은총에 대해 알미니우스주의적 사유에서 더 나아가고 말았다. 저자는 피녹의 주장이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아닌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는 신학으로 나갔다고 비판하였다.



계시와 역사의 관계에 대한 초기 바르트(Karl Barth)의 이해를 저자는 흥미롭게도 키에르케고어의 관점에서 비평한다. 특별히 계시는 우리의 역사 안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바르트의 주장과 대조적으로 키에르케고어는 계시는 시간과 역사 너머의 영역에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계시는 시간과 역사 너머 혹은 배후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저자는 키에르케고어에게 하나님과 인간, 영원과 시간의 이원론은 시간과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 행위에서 극복된 이원론인 반면, 바르트에게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영원과 시간, 원역사와 역사, 근원의 영역과 이 세상 영역, 시간과 역사 너머에 있는 것과 시간관 역사 안에 있는 것 사이의 이원론은 하나님조차도 극복하실 수 없는 것이라고 조롱한다.

차일즈(B. S. Childs)의 정경적 성경신학은 성경의 역사성에 대한 불인정과 비평적 방법을 창조적으로 충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저자는 참다운 개혁과 성경 신학의 원리를 잘 드러내도록 작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저자는 많은 공헌에도 불구하고 피터 엔즈(Peter Ends)의 성경 해석은 기존의 사도적 개혁신학 전통에서 진보적으로 시도하려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저자는 존 요더(John Yoder), 레슬리 뉴비긴(Leslie Newbigin), 해방신학, 그리고 최근 인기 있는 톰 라이트(N. T. Wright) 등 우리에게 매우 매력적이지만 먼 이웃의 신학들이라 평가한다.

저자는 존 요더(John Yoder)의 긍정적인 면을 먼저 언급한 후 아쉬운 점과 근원적 문제점을 지적한다. 구원 문제의 모호성,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리고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것, 지옥에 대한 잘못

된 인식 등이다. 그러나 요더의 근원적인 문제는 절대적 평화주의를 주장하면서 성경 전체를 억지로 이해하려는 것과 사회에 대한 책임 회피, 국가와 군대에 대한 부정적 견해 등이다.

저자는 뉴비긴의(Leslie Newbigin) 신학과 남미의 해방신학 그리고 톰 라이트(N. T. Wright) 신학을 평가한다. 저자는 이들의 신학적 공헌과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성경적 관점과 동떨어져 있음을 주지시킨다. 이들은 모두 구원론에서 다양한 견해들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주라는 진리를 양보하고 타협하고 있다. 저자는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에큐메니칼은 무엇인지 말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요청한다. ㉞

